



정의의 종

Vol. 29 2017. 2

발행인 조흥식 | 편집인 이재민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6866 | Fax 02-889-7196

<http://law.snu.ac.k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 법학대학원장 이·취임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28대 학장 겸 법학대학원 제5대 원장 이·취임식이 2016년 6월 17일 72동 아트리움에서 열렸다.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대학원장으로 조흥식 교수, 교무부학장 겸 교무부원장으로 이재민 교수, 학생부학장 겸 학생부원장으로 허성욱 교수가 앞으로 2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되며, 기획부학장 겸 기획부원장으로 최계영 교수(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이계정 교수(2016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가 임명되었다. > 2page

2015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 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



2015학년도 후기 법과대학·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2016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열렸다. > 5page

제3회 학봉사 논문공모 및 연구지원

서울법대 학봉사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사학회가 후원하는 학봉상이 올해 제3회 논문공모 연구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제3회 학봉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현상과 그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저출산 사회: 일, 가정, 삶의 균형(Work-Family-Life Balance)'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논문 및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은 2017년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총 상금은 1억원 내외이다.

문의

E-mail | hakbongprize@snu.ac.kr

우 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7동 209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학봉사 운영위원회 사무국

전 화 | 02)880-2446

홈페이지 | http://law.snu.ac.kr/hb_award/

Contents

2-6 법대·법학대학원 소식

7-8 초청강연

8-11 연구소·센터소식

11-12 공개강좌 / 발전기금 출연현황

법대·법학대학원 소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 법학대학원장 이·취임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28대 학장 겸 법학대학원 제5대 원장 이·취임식이 2016년 6월 17일 72동 아트리움에서 열렸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김진환 서울법대 동창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이날 행사는 신임 기획부학장 최계영 교수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과 김진환 서울법대 동창회장의 축사에 이어, 이원우 전 학장의 이임사 및 상징인장 전달, 조홍식 신임학장의 취임사 및 신임 부학장 소개 그리고 공로패 및 꽃다발 증정 으로 진행되었다.

신임학장단은 조홍식 학장, 이재민 교무부학장, 허성욱 학생부학장이 2016년 6월부터 2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되며, 최계영 기획부학장은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계정 기획부학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조 홍 식
법과대학장 겸 법학대학원장



이 재 민
교무부학장 겸 교무부원장



허 성 욱
학생부학장 겸 학생부원장



최 계 영
기획부학장 겸 기획부원장



이 계 정
기획부학장 겸 기획부원장

제2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제2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가 2016년 3월 10일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은 만50세 미만 또는 부교수 이하인 투고자의 글을 대상으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주어지는 상으로, 작년에 이어 시상되었다. 수상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로 선정되었다.

수상 논문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 및 입법론'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새롭게 도입된 법적손해배상제도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한계를 갖는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동진 교수는 "교수로 일하며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공부 또한 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전하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야만 보다 세련된 입법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세종 탈북민학생 반액장학지원 기부협약식



2016년 4월 1일 '법무법인 세종 탈북민학생 반액장학지원 기부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인 김동수(가명) 학생에게 반액 장학금을 기부했다.

법학대학원 17동 207호 원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기부협약식에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이원우 원장, 김종보 교무부원장, 천경훈 학생부원장과 법무법인 세종의 김용담 전 대법관, 강기효 사무국장 그리고 김동수 학생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개회, 협약서 서명 및 교환, 폐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 군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도선사장학금 수여식



2016년 4월 4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에서 도선사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사단법인 한국도선사 협회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3학년 3명, 1, 2학년 각 2명씩 7명의 학생이 총 7천만원의 장학혜택을 받게 되었다. 나종팔 협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장학증을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해동학술정보실 개관식



'해동학술정보실 개관식'이 2016년 4월 20일에 열렸다. 법학대학원 15동 401호 앞 공간에 조성된 해동학술정보실은 참고도서 열람과 노트북 활용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는 자원에서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이번 개관식은 이재민 기획부원장의 개회사, 김종보 교무부원장의 경과보고, 김정식 이사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이원우 원장의 기념사, 채수평 학생회장의 감사 인사에 이어 개관식에 참석한 내·외빈의 해동학술정보실 현판 제막식 및 테이프 커팅, 시설 투어 순으로 진행되었다. 설립 기금을 쾌척한 해동과학문화재단 김정식 이사장(서울대 전자공학 56년 졸업)은 학생들이 꾸준하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법대 장학사업 60년 기념 '정의의 종 타종식'



서울법대 장학사업 60년을 기념하는 '정의의 종 타종식'이 2016년 5월 10일 열렸다. 이날 타종식에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이원우 원장, 서울법대 장학재단 오윤덕 이사장, 서울법대 동창회 김동건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재학생 등이 참석하여,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앞 광장의 정의의 종을 타종하였다. 총 여섯 번 이루어진 이번 타종에는 장학사업 60년 및 1895년 5월 6일인 법관양성소 개소일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겼다.

타종식 이후에는 <서울법대 장학사업 60년사>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 및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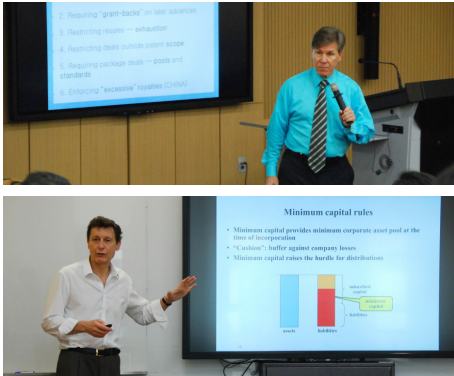
공동학술대회 <미래사회와 법> 개최



2016년 5월 30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미래사회와 법'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사법정책연구원, 버클리 로스쿨이 공동 주최했으며, 개회식에서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원장은 "우리는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는지 경험한 바 있다. 법률가로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며 미래의 변화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Laurent Mayali 버클리 한국법 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문제들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술대회는 제1세션 '반테러리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에서의 접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제2세션 '법관의 국가안보목적 구속적부심사권', '정보통신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미래사법 실현 방안', 제3세션 '환경법에서 성문법과 규제기관이 실제 집행하는 법과의 차이', '한국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최근 이슈 및 동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법학대학원 국제하계강좌



2016년 7월 중순에서 8월 초에 걸쳐 법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하계강좌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하계강좌에는 Randall R. Rader(조지 워싱턴대), Peter O. Muelbert(독일 마인즈대), Laurent Mayali(U.C. Berkeley), Brent Newton(미국 연방양형위원회) 교수가 초빙되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국제하계강좌 수업은 지난 2009년부터 학생들에게 세계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5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 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



2015학년도 후기 법과대학·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2016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열렸다. 학위수여식은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 졸업식사, 축사, 졸업생 인사, 교가제창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조흥식 원장은 졸업식사에서 '법학적 상상력'과 '법적 논증 및 법적 사고'를 강조하며, "자신만의 독창적 상상력 있는 학자가 되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 될 것"과 함께 "진로를 법조인으로 한정하지 않되, 법적 논증방식과 사고방식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김진환 서울법대 동창회장 역시 앞으로의 졸업생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포용과 겸양의 리더십을 가질 것, 적극적, 능동적, 긍정적 자세를 견지할 것, 따뜻하고 베푸는 법 종사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졸업생대표 법학박사 이상훈('07) 학생은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보고 교직원 및 졸업생들의 가족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는 법학박사 12명, 법학석사 29명, 법학전문석사 1명, 법학사 9명 등 총 51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2016년 2학기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6년 2학기 서울법대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2016년 8월 31일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2016년 2학기부터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들(교환학생 25명, 유학생 11명)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여명의 외국인 학생 및 교직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외국인 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소개, 개설강좌, 수강신청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소개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어 외국인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 코트 콘서트 개최



2016년 9월 26일 서울법대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고등법원 주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관으로 '2016 코트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조은경 판사, 하상의 판사, 오경미 고법판사, 현낙희 판사, 서승렬 고법판사 연사로 참여하여 다섯 개의 주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였다.

김세이 재판연구원의 행사 안내를 시작으로, 조은경 판사가 '법적사실=진실?'이라는 주제로 재판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하상의 판사가 '판사와 피아니스트'를 주제로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악보를 해석하는 피아니스트와 사건을 해석하는 판사의 공통점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어 오경미 고법판사가 '엄마에게 법률언어로 말해 봐'라는 강연을 통해 법률언어와 일상 언어의 간격을 좁힐 필요성을 소개하고, 현낙희 판사가 '법이 지구촌으로 나갈 때'를 주제로 국제무대에서의 법원의 활약과 예비 법률가들이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후 서승렬 고법판사가 '판사의 희로애락'이라는 주제로 판사의 행복과 보람에 대한 마지막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후 가수 요조의 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며, 권영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다섯 명의 연사가 함께 참여한 '이야기마당'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서울법대 후원의밤



2016년 10월 7일 서울대학교 법대학원 15동 송상현홀에서 서울법대 후원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자칫 학업과 연구에 소홀해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조흥식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김진환 동창회장을 대신한 김동건 전 동창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재민 교무부원장이 참석한 내·외빈에게 '서울법대 현황 및 비전 2020'을 소개 하였고, 서울음대 비바양상블이 식전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이어진 만찬 중 재학생 대표 3명(3학년 조형찬, 2학년 김하영, 학생회장 채수평)과 외국인 재학생 대표 1명(에티오피아 탐랏), 졸업생 대표 2명(1기 김재왕 변호사, 3기 이자희 검사)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최계영 기획부원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되었다.

제10회 BESETO Conference 개최



서울대학교 법대학원과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제10회 BESETO Conference가 'Role of Law and Legal Educ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Recent Experience of China, Japan and Korea'라는 주제로 2016년 10월 28일 17동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컨퍼런스에는 서울대, 동경대, 북경대의 법학교수들이 참석하여 각 세션별로 두 개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각 세션별로 '세계화 된 사회에서의 변화하는 법률가의 역할, 법학교육에 있어 최근의 변화들,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학 교육의 역할'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북경대 Yang Ming 교수가 'Cultivating IP Talents in the Age of Internet'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동경대의 Haruo HIRANO 교수는 'Career Development of In-house Legal Practitioners: Expectations for Law Education'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일본 법학교육의 지향점과 방식을 설명하였고,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동경대 Takiashi ARAKI 교수가 'Legal Educ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Recent Experience and Discussions at the University of Tokyo'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 천경훈 서울대 교수가 'Between Academism and Professionalism: Experience of SNU Law School in Legal Education'을 주제로 발표하여 일본과 한국의 법교육 시스템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3세션에서 이루어진 북경대 Che Hao 교수의 'Bridging Theory and Praxis: Case Method for Law Students' 발표는 사례연구 중심의 법학강의방법론을 다루었으며, 서울대 이재협 교수의 'The Changing Landscape of the Korean Legal Profess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발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전후 한국 법조계의 변화 양상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제2회 학봉상 시상식



제2회 학봉상 시상식이 2016년 11월 16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72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 故 학봉 이기학 선생(1928~2012)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만들어진 상으로, 현대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근원적 해답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조홍식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서울법대 김복기 교수의 심사경위보고, 서울대 경제학부 정운찬 명예교수의 심사평, 시상식, 제1회 연구지원대상자 연구성과 발표, 그리고 이연현 재단법인 학봉장학회 이사장의 학봉상 취지 소개 및 제3회 주제 공표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2회 학봉상은 '청년실업, 세대간 갈등, 한국사회의 미래는?'을 주제로 하였으며, 논문공모 연구자부문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청년실업(이경은, 홍윤표)'이 선정되었다. 또한 논문공모 일반부문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박미희, 홍백의)'이, 일반부문 장려상 수상작으로는 '현대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의 기원과 전망: 세대균열과 세대주의를 넘어서(송은호, 이가현)'가 선정되었다. 제2회 연구지원대상 연구계획으로는 '세대 차이인가, 계층 차이인가? 한국과 일본의 가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홍백의, 은석, 안승재, 함선유)'와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빈곤경험과 노동경험: 일반계고 졸업생을 중심으로(박진아, 남미자, 이해정)'가 선정되었다.

한편, 2017년도 제3회 학봉상은 '저출산 사회: 일, 가정, 삶의 균형'을 주제로 하며, 공모 일정은 2017년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기념 특별강연회



2016년 11월 29일 서울법대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기념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강연회의 연사는 이번 해에 학술연구상을 수상한 정인섭 교수로, '왜 국제법을 말하려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인섭 교수는 "과분한 상을 받고,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수상 소감을 밝히는 한편, 강연을 통해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공통 언어이자, 사회의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강연은 세계화 시대의 국제법의 역할과, 우리나라 헌법 조항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은 2008년부터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교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정인섭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방송 통신대학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법학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현재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인섭 교수는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국제인권법과 조약법 분야에 관한 선도적 학술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프로보노-사랑의 연탄나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모임인 프로보노는 2015년에 이어 지난 12월 28일 서울시 관악구의 어려운 주민에게 조홍식 원장, 이재민 교무부원장, 이계정 기획부원장 및 학생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이웃사랑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사에 참가한 교수와 학생들은 홀몸 노인, 차상위계층 등의 가정에 연탄 1,400장을 전달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조홍식 원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학생들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눔의 정신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와 당부의 말을 하였다.

제7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및 Asia Pacific Law Forum Series 15 강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주관한 '제7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및 Asia Pacific Law Forum Series 15'가 2016년 3월 25일 이번 강연에서 Monash 대학의 리차드 크레버(Richard Krever) 교수가 'Is China still Africa's Friend?' 라는 주제로 국제 거래에서의 과세권에 대해 강연했다.

크레버 교수는 '국가 간의 투자와 개발, 조세권 관련 조약, 국제 거래를 규율하는 질서의 역사적 변화, 특정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 이와 관련된 UN 및 OECD 모델, 그리고 아프리카 투자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 등을 다루었다. 또한 질의 응답을 통해 국제 거래에서 중국이 갖는 위상의 특수성, 재화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투자 등의 주제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초청강연



2016년 5월 13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제44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있었다.

이날 초청강연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연사로 초청되어 '꿈꾸는 모든 것이 미래가 된다: 헌법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헌법재판소가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을 증진시키는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다뤄진 사례들을 살펴보고,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랜만에 모교에 와 강연을 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헌법재판소의 본질이란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하며 마무리 하였다.

제8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2016년 5월 24일 '제8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이 17동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스톡홀름 대학교(Stockholm University)의 세야드(Sideek Mohamed Seyad) 교수가 'A Critical Overview of the EU's Banking Union'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세야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유럽이 2011년 직면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색한 여러 가지 방안 중 새로운 해법으로서 은행연합(Banking Union)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은행연합의 세 가지 핵심적인 구조로 단일은행감독기구(SSM), 단일정리기금, 범유럽 보증기금을 들었다. 특히 단일 은행감독기구는 유럽중앙은행 산하의 감독위원회에서 수행되는데, 그간 EU에 부재했던 통합적인 재정 감독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끝으로 은행연합이 완전하게 시행될 경우 이는 유로화 도입 이후 가장 큰 주권 양도가 될 것이고, 유로존의 위기가 오히려 신(新) 유럽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선택이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지하며 강연을 마쳤다.

제9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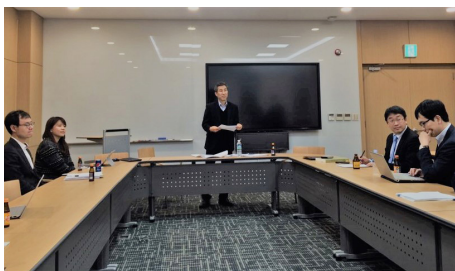
2016년 10월 20일 '제9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이 17동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존 라이트너(John Leitner) 교수가 'American Privacy – From Exclusion to Autonomy'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2009년부터 4년간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하였던 라이트너 교수는 2017년부터 미국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에서 활동할 예정으로, 현재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강연은 영미법계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의미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짚어보며 최근 개인정보의 수집·활용과 보호 간의 긴장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분리된 영역'이라는 의미였던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가정과 주거의 보호, 통신의 비밀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으며 현대 기술발전예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영역과 그 방법 모두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 또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하여 고민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연구소·센터 소식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포럼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에서는 국내 환경·에너지법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총 2차례의 환경에너지법정책포럼(제25차 규제개혁: 법과 정책, 제26차 신기후체제의 특징과 향후 과제)과 총 4차례 에너지법연구포럼(제1차 천연가스산업법제도 연구, 제2차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신산업, 제3차 국내 전력·가스산업의 정책방향 제언, 제4차 에너지법 연구모임 연구주제 발표회)을 개최하여 환경·에너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의 강연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유럽에서의 특허 활동: 의료기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에서는 2016년 6월 23일 팔래스 호텔에서 '유럽에서의 특허 활동: 의료기술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Jos RODRIGUEZ COSO(유럽특허청 심사관)가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등록 자산, 절차, 우선심사'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Miguel HERRERA(유럽특허청 진단치료기국장)가 '다가오는 EU의 통일 특허시스템', Martin SCHINDLER(유럽특허청 심사관)가 '치료 방법, 수술 방법, 그리고 진단 방법', Michael OLAPINSKI(유럽특허청 심사관)가 '컴퓨터 기반 의료 발명', 이태영(법무법인 세종 변리사)이 '한국의 의료기술특허 관련 쟁점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2016 제12회 아시아법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제12회 아시아법경제학회(Asian Law & Economics Association) 국제학술대회가 2016년 6월 24일~25일 법과경제연구센터 주관하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에서 진행되었다. 20여개국에서 1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가하여 역대 아시아법경제학회 학술대회 중 가장 커다란 규모의 행사가 되었고, 30개가 넘는 개별 세션을 통해 매우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6년 7월 6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Korea Data Protection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9월부터 매월 Data-Driven Economy 연구포럼을 진행하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및 그 법경제학적 함의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8월에는 연구총서로 단행본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개정판)을 발간하였다.

The 4th 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s (제4회 아시아-태평양 모의국제투자중재 경연대회)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는 2016년 8월 17일~19일에 The 4th 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s를 개최하였다. 이 경연대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enter for International Legal Studies (CILS), (사)대한상사중재원에서 주최하였으며, 협력 기관으로는 법무부, (사)서울국제중재센터가 함께 하였다.

이 경연대회는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Moot (FDI Moot)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로, 본선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16년 11월에 개최하였다. 지역대회는 Center for International Legal Studies (CILS 오스트리아)와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 변론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8개국 20개팀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중재인 75명을 포함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중국, 홍콩, 중국 (SAR),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 출신이다. 이 대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 투자 중재 커뮤니티가 국제 투자법 및 조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법률가들을 모으기 위한 연례 행사로 확립되었다.

대회 결과로 Best Oral Team : Univ. Teknologi Mara, Malaysia / Runner-up : De La Salle Univ. , The Philippines / 2nd Runner-up : Yonsei Law School, South Korea / Highest Ranked Team : De La Salle Univ. , The Philippines / Best Brief for Claimant : Univ. Teknologi Mara, Malaysia / Best Brief for Respondent :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South Korea, University of Hong Kong / Best Orator : Pineda, Julia Therese, De La Salle Univ. / Best Achievement : Faculty of Civil Law, Univ. of Santo Tomas가 수상하였다.

동경대 공동 워크숍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서는 2016년 9월 2일 우천법학관 305호에서 일본의 회사법 및 금융법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적으로 회사법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동경대 고토 교수와 후지타 교수를 초청하여 제4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최근 수차례 개정된 일본 회사법의 동향을 듣고 우리나라 회사법의 주요 발전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혁신과 규제: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규제: 비교법적 접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2016년 9월 22일~23일 제13회 국제학술대회를 우선법 학관에서 '혁신과 규제: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규제: 비교법적 접근' 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Christopher S. Yoo 교수(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가 'Everything not forbidden is permitted: A U. S. perspective on regulation and innovation'라는 주제, Karen Yeung 교수(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King's College London)는 'Tensions in Law,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Recent Cases from the UK experience'라는 주제, Thomas Fetzner 교수(School of Law and Economics, Univ. of Mannheim)는 'Innovation and Regulation: Static law in dynamic markets – how to regulate the unpredictable'라는 주제, Bertrand du Marais 재판관(Conseil d'Etat)은 'Uberizing Regulators?'라는 주제, 이병태 교수(카이스트 경영학과)는 '한국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디자인과 규제 체제의 전환의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아울러 경제규제와 법 제9권 1호와 2호가 발행되었으며,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법의 역할 변화'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법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2016년 10월 12일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속성장을 통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수출입국이라는 기치 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1961년 85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을 1979년 1709달러로 무려 20배나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고, 1994년에 이르러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서 중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1997년 선진국의 클럽이라고 일컬어지는 OECD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1997년 외환위기에 돌고 돌아 국민역량을 모아 극복하였고,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2013년 수출·수입을 합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데, 그간 경제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첨예화 되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도성장이 멈춘 자리에 저성장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다양한 처방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학술대회를 통해 해방 이후 한국 자본주의에 나타난 특징과 변화를 헌법,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21세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요구에 법질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콜로키움 및 한국법철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는 2016년 1월부터 <로마법 강독회>, <법철학 교실>, <한국법제사 강독회>의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법이론연구센터는 정례 <콜로키움>을 개최해왔다. <제1회 콜로키움>은 2016년 10월 24일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백철 박사의 저서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의 서평회를 진행되었다. <제2회 콜로키움>은 2016년 11월 24일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은정 교수를 모시고 "론 풀러(Lon Fuller)의 『법의 도덕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법이론 연구센터는 2016년 12월 10일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한국법철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법철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주최 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현대 자연법론의 쟁점과 동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박은정 교수(서울대학교)의 기조강연("전환시대의 법철학자연법론의 귀환(?)")을 시작으로, 강태경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풀러의 유노믹스")와 김현철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자연주의적 자연법이론")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지정토론은 광주과학기술원에 김진우 교수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 정채연 교수가 맡았다. 100여분 가까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공동주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는 2016년 11월 4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였다. 제1부에서는 EU와 러시아에서의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를 네덜란드 Vrije 대학교의 Klara Boonstra 교수와 일본 와세다대학교의 이애리아 교수가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과 윤애림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남종우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안종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상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상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소 연구교수,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2016년도 제2차 법·정책 세미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16년 11월 17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서 '표시광고법의 주요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제2차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이봉의 교수가 ‘비교광고 규제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이동진 교수가 ‘전문직 표시광고의 몇 가지 문제 : 의료광고의 예’, 법무법인 율촌의 최인선 변호사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기준’이라는 주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지영 변호사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고 관련분야 5인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공개강좌

금융법무과정 제9기 수료식



서울법대 금융법무과정 제9기 수료식이 2016년 6월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금융거래의 새로운 현상과 쟁점'을 주제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23명이 수료하였다.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제25기 입학식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제25기 과정이 2016년 9월 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오는 2월 28일 수료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이번 25기 과정에는 법조인들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 40명이 참가하고 있다.

SNU-KLI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제28기 수료식



SNU-KLI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제28기 수료식이 2016년 11월 2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거행되었다. 서울대학교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운영한 SNU-KLI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은 노사관계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최고위 지도자를 양성 하고자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6개월 간 매주 강의를 실시하였고, 노동계와 경영계, 공공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수료생 48명을 배출하였다.

발전기금 출연현황

2016년 3월 26일 - 2017년 1월 31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날짜	이름	금액	용도	날짜	이름	금액	용도
2016-03-28	이범재	1,000,000	학술	2016-09-13	법무법인율촌	1,000,000	학술
2016-03-28	육지희	10,000	위임	2016-09-27	전일호	10,000	위임
2016-03-28	전일호	10,000	위임	2016-09-27	최지석	10,000	학술
2016-03-28	최지석	10,000	학술	2016-10-05	서울법대10회	3,000,000	위임
2016-03-29	모금-24	136,500,000	위임	2016-10-07	조현욱	30,000,000	위임
2016-03-31	법무법인지평	3,000,000	학술	2016-10-08	홍석조	30,000,000	학술
2016-04-26	전일호	10,000	위임	2016-10-09	박병무 윤영신	30,000,000	위임
2016-04-26	최지석	10,000	학술	2016-10-10	법대11회	3,000,000	위임
2016-04-26	홍석조	10,000,000	학술	2016-10-10	법대34회	1,000,000	위임
2016-04-26	WIPO	43,459,840	장학	2016-10-10	법대40회	44,600,000	위임
2016-05-25	서암학술장학재단	9,750,000	장학	2016-10-10	강용현	2,000,000	위임
2016-05-26	육지희	10,000	위임	2016-10-10	김재호	5,000,000	위임
2016-05-26	전일호	10,000	위임	2016-10-10	박한철	1,000,000	장학
2016-05-26	최지석	10,000	학술	2016-10-11	정지우	60,000	학술
2016-06-20	김, 장법률사무소	6,510,875	학술	2016-10-11	김현	10,000,000	위임
2016-06-21	Eyagi(이야기) CAFE	22,500,000	장학	2016-10-13	석동현	2,000,000	위임
2016-06-23	조홍식	10,000,000	위임	2016-10-24	이재민	3,512,500	위임
2016-06-28	전일호	10,000	위임	2016-10-26	전일호	10,000	위임
2016-06-28	최지석	10,000	학술	2016-10-26	최지석	10,000	학술
2016-06-29	ALP 24기	30,000,000	위임	2016-10-28	조홍식	10,000,000	위임
2016-07-05	안인희	20,000,000	학술	2016-10-30	조대연	1,000,000	위임
2016-07-12	후원자00065	5,000,000	장학	2016-11-04	더처치	300,000	학술
2016-07-26	전일호	10,000	위임	2016-11-07	임한흠	1,000,000	학생
2016-07-26	최지석	10,000	학술	2016-11-11	정지우	60,000	학술
2016-08-19	사단법인나눔	3,336,500	장학	2016-11-15	학봉장학회	35,000,000	학술
2016-08-25	모금-25	97,500,000	위임	2016-11-29	전일호	10,000	위임
2016-08-25	서암학술장학재단	9,750,000	장학	2016-11-29	최지석	10,000	학술
2016-08-26	전일호	10,000	위임	2016-12-05	성정옥	10,000,000	장학
2016-08-26	최지석	10,000	학술	2016-12-13	정지우	60,000	학술
2016-08-30	청파장학재단	6,673,000	장학	2016-12-13	WIPO	3,147,200	장학
2016-09-05	(주)한화갤러리아	24,000,000	장학	2016-12-15	법무법인지평	12,500,000	도서
2016-09-07	한화생명보험(주)	24,000,000	장학	2016-12-15	이신범	200,000	모금
2016-09-07	한화자산운용	24,000,000	장학	2016-12-21	안미자	500,000	학술
2016-09-07	한화석유화학(주)	24,000,000	장학	2016-12-27	전일호	10,000	위임
2016-09-07	(주)한화	48,000,000	장학	2016-12-27	최지석	10,000	학술
2016-09-07	한화엘앤씨(주)	24,000,000	장학	2016-12-30	손경식	100,000,000	장학
2016-09-07	한화에너지(주)	24,000,000	장학	2016-12-30	(재)송복은장학회	6,000,000	장학
2016-09-07	한국도선사협회	30,000,000	장학	2017-01-11	정지우	60,000	학술
2016-09-09	한화손해보험(주)	24,000,000	장학	2017-01-26	전일호	10,000	위임
2016-09-09	한화증권	24,000,000	장학	2017-01-26	최지석	10,000	학술
2016-09-13	정지우	60,000	학술	2017-01-26	신동승	10,000	위임
합계						1,031,289,915	